

만성지구에 224면 '공영주차타워' 들어선다

설계 공모 당선작 최종 선정 사업비 161억 들여 2026년 완공

전주시 만성지구에 대규모 공영주차타워가 들어선다.

전주시는 공영주차타워를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만성지구 랜드마크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전주 만성지구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만성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의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작은 (주)에스제이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제안한 '전주시 시화 개나리를 모티브로한 개화(開花)' 작품으로, 대지 주변 현황을 잘 고려해 부지 특성상 삼면이 도로에 접한 면을

활용한 공간 배치를 제시한 점과 증축을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다. 특히 차량 및 보행인의 진출입 동선 배치 및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지난 19일 열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까지 5단에 건축면적 8,109㎡, 주차대수 224면의 공영주차타워를 조

설할 계획이다.

시는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된 만큼 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뒤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만성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위해 지난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건축위원회 심의, 일상감사, 임가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 /김성순기자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이번 설계 공모의 당선작은 기존 주차타워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시의 활기를 반영하는 생동감 있는 신개념 주차공간으로 제안됐다"며 "공영주차타워가 향후 만성지구 내 주차환경 개선은 물론, 전주 북서부권 만성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순기자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꼭 챙겨요

새달 20일부터 확인 의무

전주시는 건강보험 진료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시보건소·덕진보건소 또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료가 가능했다.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항정신성 약품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어·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시 보건소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와 응급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전국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됐다"고 말했다. /홍재희기자



봄철 병해충 방제작업 중인 소독차량 25일 완주군청 산림복지과 방제팀이 소양면 뱃꽃나무 가로수 길에서 봄철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이원철기자

'숙원 사업' 전주교도소 이전 물꼬

작지마을 주민 이주부지 마련 올 상반기 이주단지 보상협의 내년 6월까지 조성 완료 계획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인 작지마을 20가구 주민들이 옮겨 갈 지역 마련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또한 물꼬가 트였다.

전주시는 25일 작지마을 이주단지 편입될 평화동 3가 산11번지 일원 2만107㎡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다음 절차로 이주단지 보상협의를 통보했다.

시는 올 상반기까지 이주단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전부지나 이주단지 편입될 토지 보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이 9

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시는 법무부와 지난 2019년 12월 토지·지장물 보상 위·수탁 체결 후 2021년 이전부지 작지마을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전부지 17만2000㎡, 지장물 122건에 대한 보상비 400억원이 책정돼 당초 계획했던 65억원에서 335억원이 증가됐고, 이중 9만 9242㎡ 재감정평가로 9억원이 또 늘었다.

이주단지 편입 토지 역시 지난해 말 22억원에서 75억원으로 53억원이 증가해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총사업비가 1821억원에서 1874억원으로 변경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작지마을 주민들은 이주단지를 조성해놓고 협의를 진행하는 의사를 밝혔다"며 "최대한 빨리 작지마을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재희기자

'학생 교육 보장' 도교육청 올해 첫 추경 편성

총예산 4조 7289억 원 규모 디지털 전환지역 특성 반영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267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디지털 교육 혁신·늘봄학교 운영·교육활동 보장 분야에 중점을 뒀다.

25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본예산보다 2,267억 원(5.0%)이 늘어난 올해 첫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면 올해 총예산은 4조 7,289억 원 규모다.

먼저 AI 기반 미래교실 환경 구축과 디지털 교육혁신에 319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교사 연수체계 구축 142

억 원, 스마트 칠판 보급(738개 교실) 73억 원,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학교 유무선 망 점검·개선비 52억 원,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새싹캡 및 디지털 튜터 운용비 44억 원,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구축 예산 7억 원,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지원 예산 1억 원 등이다.

본격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아동친화적 늘봄교실 환경 조성비 71억 원,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예산 57억 원, 늘봄실무사 및 기간제 교사 배치 예산 60억 원, 늘봄학교 사업추진센터 운영 관련 예산 3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지원에도 본격 나섰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에 따른 학생 분리지도 교원 수당 20

억 원, 학교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한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구축비 15억 원,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운영비 2억 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2명) 채용 비용 1억 원 등이 새로 꾸려졌다. 또 학생 안전관리 관련 51억 원,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관련 7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자치도교육청은 공공요금 인상(5.2%)과 학생 수 변동을 반영해 학교기본운영비 88억 원을 추가 지원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전주시 대중교통 냉온 편의시설 점검

이달부터 5월말까지 진행 승강장 897곳·버스 419대 대상 에어컨·냉온열의자 설치도

전주시가 여름철 불볕더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내버스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5월말까지 유개승강장 897개소 및 버스 419대(시내 394대, 마을 25대)를 대상으로 점검·정비를 진행한다.

점검·정비 대상은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승강장 내부 냉·온열의자 및 에어컨 등으로 냉방기 작동상태 및 시내(마을)버스 내·외부 에어컨 필터 청소 및 작동상태

이다. 이와 함께 총 1억4500만원을 투입해 이용객들이 많은 승강장인 서신광진아파트 등 45개소에 에어컨 20개, 냉·온열의자 25개를 추가 설치한다. 에어컨은 승강장 내부에 설치된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 5분간 작동 후 자동으로 멈추고, 냉·온열의자는 외부 대기온도가 24도 이상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가동돼 의사표면온도를 26~28도로 유지시켜준다.

심규문 대중교통본부장은 "이번 폭염대비 일제점검 및 정비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에 발맞춰 대중교통 기반 시설·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대중교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재희기자

전북 교육공무직 경쟁률 평균 115:1

전북지역 제1회 교육공무직원 채용 평균 경쟁률이 115대 1을 기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채용에는 3개 직종 223명 모집에 총 2,567명이 지원했다.

168명 채용하는 늘봄실무사 직종은 총 2,265명이 접수했다. 지역별로는 전주 15명 모집에 808명이 접수해 53.9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이어 군산 17.6:1, 익산 14:1, 완주 12.5:1, 김제 10.8:1 등이었다.

교육복지사는 5.8대 1, 교육복지조정자는 3.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27~28일 자격증 등 제출 서류를 받아 6월 15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6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장천기자

제24회
경로
국민
대공연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원전,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까지
한국전력공사는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경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에너지리더 한국전력

하루 10시간 01. 에너지서비스를 1등급 계층 사용자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자기 - 0.09 kWh/일